

단어 암기는 힘들어요! 어떻게 외우죠?

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고민은 어쩌면 단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외워할까라고 하는 점이 아닐까요? 그래서 이번은 단어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?

연구에 의하면 ①읽기·듣기 학습 활동(수동적 학습)보다 쓰기·말하기 학습 활동(능동적 학습)이 학습 효과가 높다, ②단기간의 반복 학습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 학습하는 편이, 그리고 시간 간격을 일정하게 하기보다는 서서히 늘려 나가는 편이 유효하다, ③문법적·의미적으로 관련된 두 개 이상의 단어 결합(연어)으로 외우는 게 효과적이다, ④입력 중심보다 출력 중심 학습 활동이 장기기억화 되기 쉽다는 보고가 있습니다.

여러 가지를 소개해 봤습니다만 그럼 과연 상기 내용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?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. 가장 유효한 방법은 학습 노트(단어장)를 만들어 어느 한 단어를 사용해 여러가지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단어의 카테고리가 되는 단어 뭉치와 표현을 점점 추가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?

그리고 무엇보다 더욱 더 효과적인 것은 학습 노트를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보는 것입니다. 사람에 따라 암기에 재능이 있는 분도 있지만 재능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. 저 자신은 옛날부터 금방 실증을 느끼는 성격이고 암기에 재능이 없었습니다. 따라서 일본어 단어를 외울 때는 암기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읽어 나가는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.

일반적으로 일본인 성인의 사용 어휘(쓰거나 말하거나 할 때 사용하는 어휘)는 2 만어 정도이며 이해 어휘(듣거나 읽거나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어휘)는 4~5 만이라고 합니다.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약 1 만어를 외우면 90%의 일상회화가 가능하므로 이전의 일본어능력시험 1 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6 급 합격 기준은 1 만어를 상정해서 만들어졌습니다.

여러분 공부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이번에 소개한 어휘 학습법을 자신에 맞게 바꿔 보고 꼭 한국어능력시험 고급에 도전해 보세요.

하정일(오사카공립대학교)

←		타다←				
←	켜다←	출발하다←	내리다	틀다←		
	시원하다←	보내다←		기다리다←	끄다←	
←	타다←			앉다←		
←	부르다←	도착하다←	乗り物←	서다←	데려다주다←	
←	덮다←	오다←		멈추다←	사고가 나다←	
←		출다←	빠르다←	오다←		

세요/으세요←
 까요/을까요←
 아/어 주세요←
 아도/어도 돼요←
 면/으면 안 돼요←
 지 마세요나ㄹ←